

천주교수원교구

CATHOLIC DIOCESE OF SUWON

우 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정자동) / 전화 (031) 244-5001~5 / 전송 244-3991

문서번호 천수교 2020-75

시행일자 2020. 3. 25.

수신 제위신부 및 기관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결 재	
	번호	:	·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목 수원교구 '본당 공동체 미사' 재개에 따른 교구 지침 공지

†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존경하는 신부님,

교구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차원에서 종교집회 운영의 자제를 요청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미사 중단을 4월 5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까지 연장하고, '본당 공동체 미사'를 4월 6일 성주간 월요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당 공동체 미사 재개에 관한 '수원교구 지침'을 붙임의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본당 공동체 미사에 임해 주시고, 교구 차원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붙임의 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원교구 '본당 공동체 미사' 재개에 관한 수원교구 지침.
 2.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해자를 화해시키는 예식. 끝.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 이 용 훈 주 교

이 용 훈 주 교

수원교구 '본당 공동체 미사' 재개에 관한 수원교구 지침

수원교구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관련 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2020. 3. 21.)과 경기도의 '총리 긴급 담화 발표에 따른 종교시설 감염병 예방 긴급조치사항 협조'(문화중무과-4545, 2020. 3. 23.)에 따라, 교황청 경신성사성 교령(2020년 성삼일 전례에 관한 지침, Prot. N. 153/20, 2020. 3. 19.), 교황청 내사원 공지(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화해의 성사에 관한 공지, N. 255/20/1)를 바탕으로 교구 내 본당에서 재개할 공동체 미사에 관한 안내와 거행방법 등을 담아 이 지침을 마련하였다.

I. 본당 공동체 미사

1. 교우들이 참여하는 각 본당의 공동체 미사는 4월 6일(월)부터 거행한다. 단, 종전과 동일하게 4월말까지 교구, 대리구, 본당 내 각종 행사 및 단체 모임은 중단한다.
2. 4월 2일(목)부터 4월 5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까지 수원교구 교우들은 가정에서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미사를 시청하며 참여한다. 4월 6일(월)부터 거행되는 본당 공동체 미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가급적 최소한의 교우들이 참석하도록 인도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은 4월 8일(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4월 12일(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평화방송의 생방송 미사를 시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특별한 상황의 시기에 한해, 주일 및 대축일의 의무는 생방송만 유효하다.
3. 성주간이 시작되는 4월 5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본당 주임 신부는 소수의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한 예식으로 성지(聖枝)를 축복하고 성지 주일 미사를 거행하며, 축복한 성지(聖枝)는 본당 공동체 미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교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4. 영유아와 그의 부모, 기저질환자, 노약자, 연로한 어르신, 청소년,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본당 공동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당분간 본당 공동체 미사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합당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고, 다른 이들은 가정에서 대송을 바치거나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미사에 함께하며 기도를 바친다.

5.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동참하기 위해 본당에서는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는 날부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정부 지침 포함).

- 가. 봉사자들은 참여 교우들이 성당에 입장하기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 유무를 판단하여 안내한다. 이를 사전에 교우들에게 미리 안내하여 이러한 증상이 있는 교우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한다.
- 나. 성당 입구에 ‘인명록’을 비치하여 각 미사에 참석하는 교우들이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다(성명, 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인명록은 날짜와 미사 시간을 명시하여 구분하여 보관한다.
- 다.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성당에 입장할 때에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다.
- 라. 성당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성당에 비치된 공동 비품(성가책, 성경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마. 가족들 이외의 이웃들과는 1~2m 정도 떨어져 자리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한다.
- 바. 본당 차원에서 소독기와 소독제를 구입하여 미사 후에 성당을 소독한다.
- 사. 모든 예식 후에는 간식이나 차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성목요일 빵 나눔, 주님 부활 대축일 계란, 떡 나눔 등은 하지 않는다.
- 아. 주례자는 복사들을 대동하지 않으며(특히 어르신 복사와 청소년 복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례를 한다. 단 제단과 교우와의 거리가 5~7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는 예식문 낭독 시에만 마스크를 잠시 벗고 할 수 있다.
- 자.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한다.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한다.
- 차. 미사 중에 교우들은 성가를 함께 부르지 않는다. 오르간 반주를 이용하고, 특히 성 목요일부터 부활 성야 전까지 화려한 오르간 연주를 제외한, 단순한 성가 연주는 허용한다. 교우들과 떨어진 성당 한편에 자리한 곳에서 독창자의 성가 연주는 가능하다.

II. 부활 판공 성사를 대신하여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해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

6. 교우들이 다가올 부활 대축제를 은총의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각 본당에서는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해자를 화해시키는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교회법 제961조 참조). 이 예식은 올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며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2020년 4월 6일(월)부터 4월 12일(주님 부활 대축일) 사이에 거행되는 본당 공동체 미사 전에 거행한다.

7. 6항의 기간 내 이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은 부활 시기 동안(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혹은 그 이후에라도 연중시기 언제든지 개별 고해성사에 참여할 수 있다.
8. 한국 교회의 관습에 따라 본당에서는 ‘관공 성사표’를 본당 교우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고, 이 기간에 거행하는 미사 전 성당에 입장할 때에 제출한다. 이 기간 이후에 개별 고해성사에 참여한 이들은 연중 제출할 수 있다.
9. 이 예식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받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예식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가 있다면 향후 개별 고해성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고해성사 예식 지침 33항, 65항 참조).
10. 이 예식은 올해만 거행하는 한시적 예식으로서, 이 기간에 거행하는 미사성제와 성 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과는 구별하여 거행한다.
 - 가. 미사 전에 이 예식을 거행할 경우에는, 주례 사제가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입당하고 ‘일괄사죄 예식서’의 ‘일괄사죄경’을 낭독한 다음, 그날 미사의 ‘입당송’을 낭독하고 ‘참회예식’부터 미사를 끝까지 거행한다(붙임2 교구 전례위원회 제공 예식서 참고).
 - 나. 성 금요일에는 다른 성사 예식을 할 수 없지만 올해에 국한하여 ‘일괄사죄 예식’을 허용한다. 주님 수난 예식은 그날의 특성을 담은 예식이므로 ‘일괄사죄 예식’과는 완전히 구분하여 거행한다. 곧, ‘일괄사죄 예식’이 끝나면 주례 사제는 퇴장하고, 잠시 후에 고유한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한다.

III. 성유 축성 미사와 파스카 성삼일 전례

※ 본 지침은 최근에 발표된 교황청 경신성사성 교령(2020년 성삼일 전례에 관한 지침 Prot. N. 153/20)을 기초로 마련하였다.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11.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하는 2020년 올해 성유 축성 미사의 참석자 범위는 ① 주교들, ② 교구 사제평의회 위원, ③ 각 대리구 사제평의회 위원, ④ 교구청과 대리구청 사제단, ⑤ 교구 내 본원을 둔 남녀수도회 관구장 및 본원장, ⑥ 교구청과 대리구청 소속 수도자들, ⑦ 교구 평협 임원 및 각 단체장이다.

12. 교우들은 ‘성유 축성 미사’ 시간에 교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며 교구 사제단의 성화를 위해 기도한다.
13. 본당에서는 이날 축성된 성유를 교구청 성직자국에서 분배받도록 한다.

성주간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14. 주님 만찬 미사에서 통상적으로 거행하던 ‘세족례’와 ‘성체 행렬’은 생략한다.
주례자는 성체분배 후에 곧바로 성체를 감실에 모신다. 따라서 ‘수난 감실’도 설치하지 않으며 교우들의 단체 받샘 성체 조배도 없다. 그러나 감실이 모셔져 있는 성당에서 개인적으로 침묵 가운데 성체조배를 할 수 있다.
15. 다음날 ‘주님 수난 예식’에서 사용할 성체를 충분히 준비하여 미사 중에 축성한다.
16. 올해에는 특별히 ‘주님 만찬 미사’ 후에 장엄 축복(미사 경본 647면 ‘5. 주님 수난’ 참조)으로 예식을 마친다.
17. 올해에는 모든 사제들에게 교우 없이 미사를 거행할 권한도 허락된다. 이날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사제들에게는 성무일도 저녁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
18. 많은 본당에서 미사 후에 실시하던 ‘빵 나눔’은 하지 않는다.

성주간 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19. ‘제1부 말씀 전례’ 중에, 주례자는 예식서에 제시된 보편 지향 기도를 모두 바치거나 선택하여 바치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아픈 이들과 죽은 이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도를 덧붙일 수 있다.
20. ‘제2부 십자가 경배’ 중에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은, 뒤에서 하던 행렬을 생략하고, 제단 근처 제의실 혹은 한 편에 준비한 자색보로 쓴 십자가를 제단 앞에서 들고 거행한다. 교우들의 응답인 ‘모두 와서 경배하세’는 성가대의 독창자가 노래한다.
21. ‘거룩한 십자가 경배’ 시, 주례 사제의 경배 후, 해설자의 안내에 따라 모든 교우들은 자리에서 동시에 목례로 거행한다. 교우 수가 적은 본당은 본당 주임 신부의 판단에 따라 거행할 수 있다.

22. ‘제3부 영성체’는 주님의 기도 전에 제단을 차리고 성체를 감실에서 제단에 모신 다음, 성주간 예식서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거행한다.

성토요일 <파스카 성야 예식>

23. 각 본당의 상황에 따라 파스카 성야 예식 중 <빛의 예식>에서 ‘불 축복’과 ‘행렬(그리스도의 빛)’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부활초 점화, 파스카 찬송(Exultet)은 해야 한다.
24. 파스카 성야 예식 중에 새 교우들을 위한 세례 예식은 다른 날로 옮겨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25. 세례 서약 갱신을 위한 성수 축복은, 본당에 비치하지 않을 정도의 물만 성수 그릇에 준비하여 축복하고, 교우들의 세례 서약 갱신 후에 성수 뿌림은 제단에서 교우들을 향해 뿌리는 정도로 간단히 거행한다.
26. 이날 본당 전통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오던 부활 계란과 떡 등의 나눔은 하지 않는다.

IV.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본당 재정 운영 지원

27. 교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각 본당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통상적으로 이 기간에 시행하던 ‘사순 제1주일, 교구 주일’, 매월 첫째 주일에 각 본당에서 실시하던 ‘사제양성 헌금’의 올해 3, 4월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사랑의 헌금’에 대한 교구 입금을 관면한다.
- 나. 각 본당의 2020년 3월분 교구 공납금을 관면한다.
- 다. 이번 상황에 따른 본당 재정 운영에 특별히 어려운 본당은 교구 관리국에 문의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해자를 화해시키는 예식

1. 이 예식은 코로나19의 사태에 따라 수원교구에서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준비하였다.
2. 이 예식은 교회의 다른 공식 예식과 구별하여 고유하게 거행되어야 한다(예식 거행 방법은 위의 지침 10항 참조).

시작예식

신자들이 모인 다음에 사제는 성당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시작 성가 대신 오르간 반주나 성가대 독창자가 노래할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기도

✚ 형제 여러분,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진실한 참회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잠깐 침묵하며 기도한다. 이어서 사제는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 주님, 간절히 비오니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도 너그러이 굽어보시어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 전례

복음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 34-40

그때에 ³⁴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³⁵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³⁶“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³⁷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³⁸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³⁹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⁴⁰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미사 중에 강론이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의 강론에서는 3분 정도로 간단히 한다.

특히 일괄 사죄를 받을 신자들에게 마땅한 준비를 갖추도록 권고하되, 저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악한 표양을 보았다면 보상하고, 지금은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되도록 일찍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권고한다.

양심성찰

침묵 중에 자신의 죄에 대해 성찰한다.(1~2분 정도)

화해 예식

일괄 고백

그 다음에 사제는 일괄 사죄를 받으려는 고해자들에게 적절한 표지로 사죄를 청하도록 권고한다.

- ✚ 이제 성사적 사죄를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또는 고개를 숙이고) 고백기도를 바치십시오.

고해자들은 다 함께 고백기도를 바친다. 끝으로 언제나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 전능하신 하느님과

◎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며 말한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주님의 기도

✚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 들여 바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모두 함께 바친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제는 아래의 기도로 끝맺는다.

+ 주님,
주님의 종들을 도와주시어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일괄 사죄

사제는 고해자들을 향하여 팔을 펴 들고, 아래와 같이 사죄경을 한다.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어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니
이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를 주소서.

◎ 아멘.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시고
저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으며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어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저희의 직무를 통하여

몸소 이 교우들을 악에서 구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 아멘

✙ 보호자이신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성부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빛을 비추시어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권능을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 아멘.

✙ 나도 성부와 ✙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 아멘.

미사 시작

이어서 그날 미사의 ‘입당송’을 낭독한 다음, 미사 통상문의 <인사> 부분을 생략하고, 참회 예식
부터 미사를 거행한다.

모든 성사가 금지된 성 금요일에 거행할 경우에는 <주님 수난 예식>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예식을 완전히 분리하여 거행하며, 올해에만 특별히 거행하도록 허용한다.